

다음달 출범 전남관광재단 창립총회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관광마케팅·브랜드 구축
전남관광 6000만시대 컨트롤 타워

고 재단 발족 여건을 마련했다. 전남관광재단은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통합마케팅을 추진해 ‘전남 관광 6000만명 시대’의 관광분야 발전을 전담할 기구로 설립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증가한 관광객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을 가진 통합 컨트롤 타워가 절실했었다. 전남관광재단은 전남 관광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업그레이드시켜, 관광을 전남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이 맡게 될 주요 기능은 관광마케팅과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업무 전담을 비롯 관광정책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역관광 추진체계와 협력강화,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전남 대표 관광브랜드 구축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관광재단이 전남 관광산업을 미래전략주력산업으로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특히 세계적인 관광추세 등을 관광마케팅에 반영해 체류형 관광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남해안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난해 전국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남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6255만명으로, 6000만명을 넘어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재개관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재개관했다.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농어민 최저 생계 보장제 만들 것”

공익적 직불금제 등 추진
인구 소멸 문제에 앞장
사람이 모이는 농촌 만들 것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주력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65) 해남·완도·진도군 선거구 당선인은 27일 “청년과 중장년들이 농촌에서 살며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견인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공익적 직불금제 등 농어민의 최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국회에서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농어촌은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 인식되면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라며 “사람이 모이면 사회, 문화 등 여러 인프라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구민에게는 “선거운동에서 지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지역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소홀함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와 관련해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신인이자 조선의

원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솔선하고, 한발 먼저 뛰어다니며 국민 이야기를 경청하고 살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풀고 싶은 지역 현안으로는 인구 소멸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제 가장 큰 목표는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신(新) 해남·완도·진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인구소멸과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역에서 사람이 있어야 인프라도 따라오고 경제도 그만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청년들이 잘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 못지않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도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

년, 중장년들을 위한 농어촌만의 특색 있는 직업을 개발하고,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도화·입법화하면서 때로는 앞에서 견인하고 때로는 뒷받침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로 청년 시절 체험했던 ‘지독한 지역 불균형’을 거론했다. 그는 “1980-1990년대 해군 장교 근무 시절 휴가를 받아 해남으로 오는 길은 많이 불편했다. 특히 전라도 도로는 정말 낙후했다. 경상도에서 해남으로 넘어오면 도로 자체가 엉망이어서 버스 안까지 먼지가 자욱하게 들어왔다”고 떠올렸다.

이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느끼기 시작했고, 특히 고향인 해남을 비롯한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에 비해 더디다고 생각했다”며 “해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면서, 고향과 해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고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곳을 굽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삼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제1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생당 현역 운영원 의원(2만7290표·30.9%)을 상대로 일전을 벌여 5만9613표(67.5%)를 획득, 승리했다.

윤 당선인은 해군사관학교와 경남대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을 졸업했다. 해군 특수전여단장, 해군 제1 합대사령관, 해군 군수사령관, 목포해양대 초빙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당 농수축산산업유통 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끝>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도, 빛그린 산단 활성화 상생협약체 가동

도·함평군, 근로자 주거단지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등 협력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로 광산업과 디지털정보가전, 첨단부품소재, 자동차부품 등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 전남도와 함평군은 산단과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 지원을 비롯 기업체의 빠른 투자실현 유도,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조기 추진과 재정 지원을 통해 산단 분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는 12월 완공예정인 1단계(264만 5000㎡)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최적의 분양조건을 제시해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함평 구간 2단계(142만6000㎡) 사업은 오는 2023년 준공과 기업 입주에 맞춰 근로자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빛그린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과 적극 협조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제언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사회혁신’ 사업 10개 선정

지역 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

전남도가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혁신공동체 조성해 해결하는 ‘사회혁신’ 사업 10개를 선정했다. ‘사회혁신’ 사업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비롯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주민참여 공간 개선 등 3개 분야에 주민공동체 57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이

들 사업 가운데 심사를 거쳐 10개 사업이 뽑혔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분야에서는 ▲순천시 종이 우유팩의 올바른 재활용 방법 홍보와 자원순환 교육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나주시 혁신도시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한 도·농 교류 플라멩코 운영 ▲광양시 건전한 보육문화 확산을 위한 임산부 태교 교실과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운영 ▲영광군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제품개발과 열린 장터 운영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분야에서는 ▲여수시 소외계층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 캠페인 ▲순천시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 발달장애인의 일손을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주민 브릿지사업 ▲강진군 어르신 장보기 대형 및 배송 서비스 ▲진도군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돕는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민참여 공간개선’ 분야에서는 ▲구례군 청소년의 부족한 문화시설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취미교실 및 자유허용 공간 조성 1개 사업이 지원 대상이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